

외대학보 449



4,5

2002년 5월 21일 807호

주제 기획

현장진단 · 대학의 스승과 제자

교수와 학생사이... 대화가 필요해!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하는 일이 다 잘되길 빌고 더욱 열심히 가르칠게요. 고맙습니다"
지난 5월 15일(수) 오전 11시경, 용인배움터 본관의 한 강의실에서 열린 '폴란드어와 스승의 날 파티'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주고받은 말들이다. 폴란드어와 학생회가 매년 스승의 날에 준비하는 이 파티에선 전학원의 3분의 1 정도인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교수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다들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학생회장 박예원(02학번)의 말대로라면 이날 한네 곳에서 스승의 날 노래가 울려 퍼졌어야 했다.

스승의 날, 대체로 조용

하지만 위의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일본어과에 재학중인 주정은(통학·일본어1)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행사 같은 건 없어요. 교수님들에게 선물 주는 사람들도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저었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전화진(통학·중국어1)도 "행사"가 있는지 묻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행사

를 치른 과도 "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는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가지 않았다"는 전자정보학과 전모군의 말과 같이 참여가 저조했다. 기자가 만나본 많은 학생들은 "수업시간 전에 노래 한번 부르고 꽃다발 주는 정도"로 스승의 날을 지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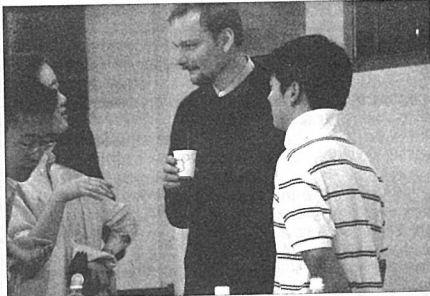
대학에서 스승과 제자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어쩌면 이미 충분히 멀어져버린지도 모른다. 대학생활을 처음 접하는 대부분의 새내기들은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과 하루종일 같이 있었는데 대학 와서 교수님들은 강의시간에만 볼 수 있을 뿐이다"(02학번 김모영), "기회와 맞물려 기회가 별로 없다"(02학번 박모군), "교양수업의 경우 카피니케이션 자체가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02학번 안모군)라며 교수와 학생간의 정(情)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수경험이 있는 인쇄학(통학·폴란드어1)과 같은 말을 들어보자. "제수학원을 다녔는데 담임선생님과 정말 친했다. 고민도 쉽게 털어놓고... 나쁜 말도 내다 내다 한 친구들 모두 그랬다. 때로는 날에는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온 친구들도 있었다". 제수학원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담임선생님을 전하며, 친아빠처럼 대했다고 회상하며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교수들에게 사소한 노력을 받았다는" 그는 "일단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다.

하지만 직접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와 강의의 많은 시뮬 달랐다. 권경애(일본어1) 교수는 "친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교수들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 말했다. 이옥진(폴란드어1)강사도 "학생들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수님들은 내가 알기로 많지 않다. 아무 의지도 없이 그저 바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교수님께서 여러 보직을 맡아 학생들에게 좋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불만을 일부 이해하기도 했다.

"학생,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게"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수) 3시 30분, 한 강의실에서 교양수업인 '철학개론'



지난 15일(수) '폴란드어와 스승의 날 파티'에서 교수와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를 들으러 온 학생들이 수업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자처럼 떠돌아다녔다. 교양수업은 음료수 한 캔과 레포트 및 부가 물품이 있을 뿐이다. 강사가 들어와도 이렇듯 지루하고 따분한 학생들은 출석을 부를때야 조금 조용해지다가 강의가 시작되자 다시 수군대기 시작했다. 학생과 과자점자를 올려놓고 과자를 먹는 학생 뒤로 다른 학생이 바짓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강의실 분위기가 연상되는 스승의 날 수업모습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만난 조명동(41)강사는 "인간 대 인간으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예의가 없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99학번 최비리(통학)는 "학생은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학생은 10%도 안되는 것 같다. 수업시간에 잠담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도 못 지키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치욕스럽다"며 그 원인을 "대학에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출세의 발판으로 졸업장만 따러 온 학생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폴란드어1)강사 또한 "잘못 말하면 친근한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예의가 없다. 문제는 좋은 바우였을 때의 '친근함'이 수업시간의 적극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수님, 더이상 성역이 아니다"

지난 3월말 서울배움터의 외대발전추진위원회(외발추)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강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외발추 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이 명단공개 후 교수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제자된 도리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비난이었다. 하지만 그는 당당히 말한다. "본명 교수님들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 예전처럼 '교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하는 때는 지나갔다."

외발추 교육국장 서세원(사회·신문방송 00)장도 마찬가지다. "공부하지 않고 권위주의에 빠진 교수들 존경할 수 있느냐? 난 배우러 대학에 왔고 배움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다.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교수님을 존경할 것이다." 이들은 98년 이후 중단됐던 강의평가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이 교수 수업은 꼭 들어라' 또는 '이 교수 수업은 듣지 마라'는 정보를 제공해줄 예정이다.

외발추를 비롯, 많은 학생들은 단지 '교수'의 명분만 달고 있음으로 인해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말한다. "학생들도 더이상 수혜자만은 아니고, 교수님도 더이상 성역이 아니다."

정철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정(情) 기반한 상호발전 관계

I 기고 - 참된 사제 관계에 대하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대학 사회의 핵심이 되는 선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학 생활 이전에도 입시 교육으로 인해 진정한 삶의 사제 관계를 교육 현장에서 보기 어렵지만, 대학교육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오늘날 우리 대학들은 학생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길러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보다는 졸업 후 좋은 직장 에 취직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 사로잡혀있다. 학생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삶 전반을 도모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취직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거나 좋은 학점을 유지하려는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한다. 선생들 역시 학생들의 인생을 지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무사히 졸업 후 좋은 직장 에 취직할 때 보람을 느끼는 듯 하고, 심지어 적잖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다고 한다. 요컨대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삶의 "산성"이 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판매자"로 변해가고 있으며,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고 지식을 사는 "소비자"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진정한 사제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의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오늘의 대학에서 필요한 사제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모든 인간관계는 내면의 진솔한 정감에 기초해만 참되고 영원하다. 사제 관계도 인간 관계의 한 유형으로 바람직한 사제 관계는 내면의 순수한 정에 기반한 사랑과 존경의 상호 관계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학문을 포함한 우리의 삶은 내면의 정감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선생의 지식을 넘겨받아 취직이나 학위 취득에 이용해야겠다는 마음기짐으로는 선생의 진정한 삶과 학문의

지혜를 전수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문화다원주의 시대에 무슨 권위나 하면서 존중받아야 마땅한 스승의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선생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사제간은 모든 면에서 동등한 관계라고 역설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반면에 선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채우면 편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강의에 임하면서 "요즘 학생들은 선생의 권위를 부정한다"고 불평하는 것이 현실이다.

논어에서 보듯이 참된 선생은 가르침에 권태를 느끼지 말아야 하며 학생의 상황에 알맞도록 충실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 '배움의 생(學生)'을 가르침의 대상인 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도반(道伴)으로 여겨 성인으로 보살펴야 한다. 이에 응해서 학생은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사제관계는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대대관계'라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는 선생이 갖는 권위는 선생과 학생이라는 신분 차이에 오는 세속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정당한 권위를 일컫는다. 또 "우리 선생은 제자에게 통 관성이 없다"라고 하기 이전에 선생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강의실에서나 열광하는 학생을 선생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는 도반(道伴)으로 여기는 법이 없다. 만만사한 연구실을 방 문하여 인생의 재발 문제를 상의함으로써 단순히 등록금을 낸 "소비자"가 아니라 선생의 삶과 학문의 지혜를 전수 받는 문화생(門下生)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병환
(철학과 교수)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기대하세요, 좋은 소식"

국토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럽.

내가 어디에 있어도 희망이 되는 그런 이름!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SAMSUNG
삼성



학생에게 개성을 교사에게 긍지를 학부모에게 믿음을!



스승의 날만 되면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옛 스승을 찾아 씹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들 스승의 날 행거노라 비웃는다. 아이들에게 스승의 마음을 가르치려했다는 교육적 목적에서라면 학부모들이 먼저 자기 스승께 편지를 쓰고 찾아 받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학교초에 주고받는 선물이라는 것이 뇌물성 존치의 성격을 띤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라 한다.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모두 내 자녀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 자녀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학부모 학교 참여는 학교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명분보다는 달리 보수적인 학교 관리자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승진한 급급한 일부교사들의 요구와 결합하여 잘못된 찬조금문화, 기부금문화 등 건 강하지 못한 학교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학교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기부금과 찬조금의 문제는 그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

1 건강한 학교문화를 위한 제안

자만 대학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건강하지 못한 학교문화 풍토 속에서 시행되는 스승의 날이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변질돼 가고 있는 만큼 모든 학기가 끝난 후인 학년말에 스승의 날을 옮기자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이제는 교육당국이 응답해 줄 때이다. 우리나라 사립에서 책을 다 공부한 후 책가방만 명목으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음식도 나누고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던 풍속에 보면 학년말에 스승의 날을 지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스승의 날을 교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강하고 교육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스승의 날을 옮기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스승의 날’ 교수만이 능사 아니다
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어야 한

다. 교육은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이, 교육시설이, 교육환경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놓고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와 학교요구에 장단 맞추는 학부모가 다 알아서 해준다.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고, 학교가 성역처럼 군림하며 교육적인 조건에는 눈치를 보면서도 정작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나 의견수렴 노력에는 소홀하거나 게으르다.

고등학교 0교시 대치여론이 한창일 때 고등학교 학부모 임원들은 0교시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명을 받느라 바빴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핑계로 이런 저런 눈치만 살피고 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은 그 결정과정에서 항상 제외돼 왔고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가 없다. 정작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과 소양을 쌓아가는 민주시민양성에 있다고 해에는 적혀 있지만 대학에 가기 위한, 취업을 위한 교육에서는 그 흔적조차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입시를 위한, 취업을 위한 교육이 되고있는 현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원강사와 학원 수강생의 관계처럼 대면한 현실에서 올바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과연 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싶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는 자포 취인 말들이 사라질 수 있는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책에만 있는 교육목표, 민주시민 양성
교육의 3주체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의 핵심은

사립이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래서 교육의 3주체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기구들을 두게 되었으나 그 수준은 형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 머물러 있다. 학교주인은 학교관리자 - 학교장, 총장 사립학교 이사장 - 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전환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사운영, 학교 예산편성, 학생 자치활동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가 형성돼 나갈 수 있다.

또한, 내 자녀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학부모 학교참여의 이를 적잖이 이용해서 받아지고있는 불법찬조금, 기부금 등의 건강하지 못한 학교 문화 개선을 근절해 나가야한다.

나아가 내자녀 이기주의의 출발점인 입시위주의교육과 학원 학원중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사실 교육 문제의 모든 본래는 학력,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다.

학생들이 가지는 저마다의 색깔과 개성이 존중되고, 교사로서는 사람을 키워나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되고 교육에서의 자율권이 인정되며,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희망한다.

윤숙자

(참고교를 위한 학부모 협의회, 수도권 위원장)

나라 따라 천·차·만·별

태국, 교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해

스웨덴, 지식 전수 관계일 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며 추모하는 뜻으로 제정된 날’ 스승의 날을 정의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교사와 학생의 전통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부일체(軍師一體)라고까지 불리던 교수와 학생의 관계, 다른 나라에선 조금 다르지 않을까? 건강(健康)이라는 글자는 ‘일본은 교수와 학생 사이가 친구보다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보다 격이 없는 관계’라고 전한다. 서로 스스럼없이 대화와 식사를 할 때도 같은 식당에서 같이 먹는다는 예가 대표적이다. ‘스승의 날’도 없다. 하지만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큰 틀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권교수는 덧붙였다.

김우조(인도어)교수의 말에 따르면 인도에서 교수-학생 사이의 선은 엄격히 구분돼 있다. ‘엄격한 상하관계이며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교수는 본분임에 대상’이라고. 인도어로 스승을 뜻하는 ‘구루’란 말은 우리나라의 ‘스승’보다 훨씬 더 존경의 무게가 실려 있는 단어. 인도에서 ‘스승의 날’은 9월 14일이다.

북도에서 교수와 마주할 때 학생이 얼굴도 푹보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는 나라가 태국이다. 최창성(태국어)교수는 “학생들이 교수를 매우 존경하고 교수는 수업시간외에도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전했다. 각 학교마다 자기 나름대로 지정하는 ‘스승의 날’에 학생이 무릎 꿇고 절을 하면 교수는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태국에서는 부모와 스승에게만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유엔식(유엔)교수는 “프랑스는 사교방식 자체가 우리와 틀리다”며 프랑스에서의 사제관계를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강의실에서 시작해 강의실에서 끝나는 관계일까, “자로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아주 드물다”고 권교수는 전했다.

스웨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성열(스칸디나비아어)교수의 말에 의하면 “교수의 역할은 오직 지식전수일 뿐”이다. 스웨덴에서는 우리나라의 ‘스승’과 비슷한 말이 없으며 ‘레라레’라는 스웨덴어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한다. 교만을 떨어놓을 상 담임이 없어도 있지만 이들은 강의와 전혀 무관하게 상담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프랑스의 스웨덴, 이 두 나라에 ‘스승의 날’ 기념일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전체적으로 사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동서로 크게 나뉘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의 교수-학생 관계는 흥미를 끈다. Kyska-Gyral Zofia(폴란드어)교수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지리하는 ‘스승의 날’ 기념일이 10월 14일과 있으며 교수가 일정시간동안 상담실에서 근무하며 상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과 상담한다. Zofia교수는 “학문은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며 “교수와 학생이 서로 노력하여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연구원에서 전임교수까지 ‘교수’의 모든 것

학생들은 평소 자신들이 듣는 수업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을 모두 ‘교수’라고 부른다. 그것은 맞는 말일수도, 틀린 말일수도 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로 나뉜다. 이 가운데서(비전임교수도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르는 ‘교수’란 호칭은 옳다. 하지만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수로의 대우를 생각할 때는 전임교수를 대우시켜야 한다.

전임교수는 위치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나뉘며 법적으로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이 지급되며 여러 복지혜택을 받는다. 부교수까지는 재직기간제한이 있어 기간이 끝나면 논문 등 연구실적에 따라에서 요구하는 기준이상이면 위치가 올라가며 기준미달일 경우 해직된다. 정교수가 되면 정년(65세)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반면 강의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지는 비전임교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시간강사와 명예교수, 겸임교수, 객임교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명예교수는 한 대학의 정교수가 정년퇴임 후 해당대학에 위촉돼 강의하는 형태이지만 법적으로 해당대학과 ‘형성’된 상태이다. 겸임교수는 기업체·연구소·국가기관 등에서 직업을 가졌지만 강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학과에서 추천하여 초빙한다.

전임도 비전임도 아니면서 강의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연구원’이 있다. 우리학교에선 외국학술원장, 외국문화연구원, 동북아지역연구소 등에 소속된 연구원이 희망할 경우 교편을 잡을 수 있다.

교무연구처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총 전임교수는 424명(내국인 355명, 외국인 69명)이며 남성 전임교수 363명(85%), 여성 전임교수가 61명(15%)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봉별로 봤을 때 40대 전임교수가 188명으로 가장 많으며 50대가 두 번째(128명)를 차지

하고, 60대(61명), 2~30대(67명) 순이다.

전체 전임교수의 평균연령은 48.76세이며(내국인 49.4세, 외국인 47.5세) 교무연구처는 최근 이공계 신규교수는 30대 초반에서, 사회·

이문계의 신규교수는 30대에서 임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New Zealand

단기, 장기 영어연수에 외대인을 초대합니다
Welcome to Global one Auckland New Zealand

Our mission is...

"to improve the general English competence of overseas students so they are able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in what ever context they use English"

www.globalone.ac.nz

왜? 뉴질랜드인가? 뉴질랜드는 안전하고 다양한 영어 문화체험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가 매력적입니다. 또한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모든 레저 스포츠의 천국입니다. 또한 학교의 운영자 및 한국사무소의 직원은 모두 외대동문으로 학교연수를 등록하는 모든 외대인에게 학비의 20%할인을 해드립니다.

Global One School of English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NZQA(뉴질랜드 정부 교육 심사국) 승인 영어 학교입니다.

ENROLMENT FEE

- ▶ NZ \$180 For all courses
- All students are tested and placed class suitable for their level.
- All students are met at the airport and taken to their new accommodation.
- All students are receive a certificate upon completion of their course
- Full payment of all course and accommodation fees is due before the course commences.
- GLOBAL ONE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its fees an anytime.

GENERAL ENGLISH COURSE

General English Course start every Monday (Minimum age 17)
25 LESSONS PER WEEK Available all year round

▶ ALL COURSE COMMENCE:
● Morning : 9.00am - 12.00pm Monday to Friday ● Afternoon : 1.00pm-3.00pm Monday to Friday

▶ LEVELS:
BEGINNER, ELEMENTARY,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PROFICIENCY

COURSE LENGTH	PER WEEK
1 - 11 weeks	\$300 / week
12 - 23 weeks	\$200 / week
24 - 47 weeks	\$200 / week
48 weeks or more	\$260 / week (NZ \$15=580원) 이외에 IELTS/TOEFL반을 운영합니다.

HOMESTAY ACCOMMODATION PLACEMENT FEE

NZ\$120 (paid once only)
Includes sourcing and screening suitable accommodation and assistance with personal problems including financial, medical and travel.

HOMESTAY ACCOMMODATION 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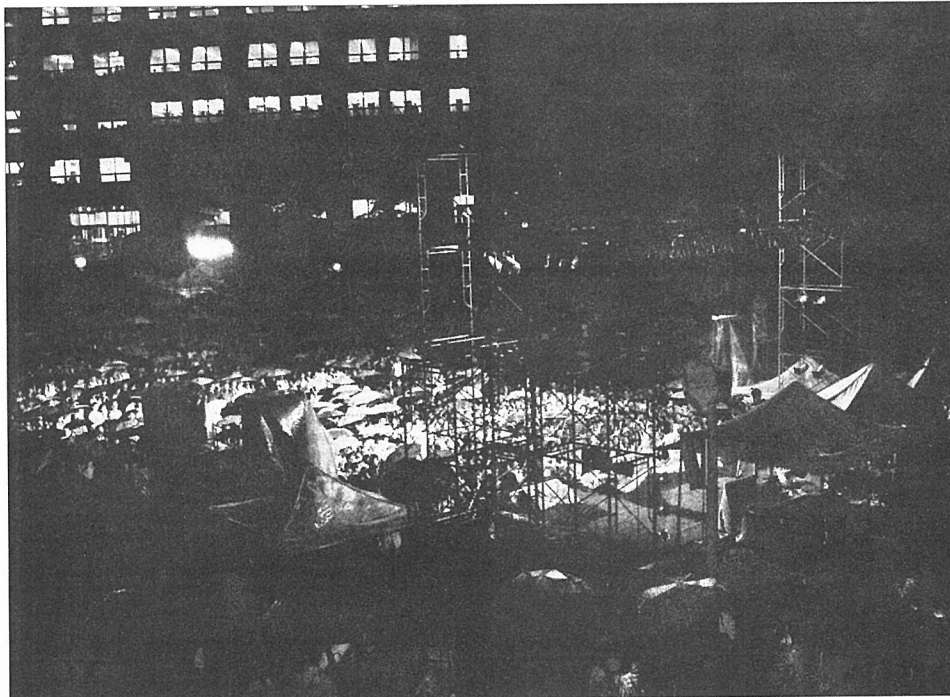
NZ\$250 (per week)
Includes breakfast and dinner, Monday-Friday, and full board Saturday and Sunday and public holidays.

GLOBAL ONE SCHOOL OF ENGLISH

10th Floor Patent House, 57 Fort Street, PO Box 3116, Auckland, New Zealand
Phone: (64-9) 377-2399, Fax: (64-9) 377-3299, Email: info@globalone.ac.nz

한국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대진빌딩 201호 전화: 02)567-0472~4

빛속 대동제, 풍년 기리는 기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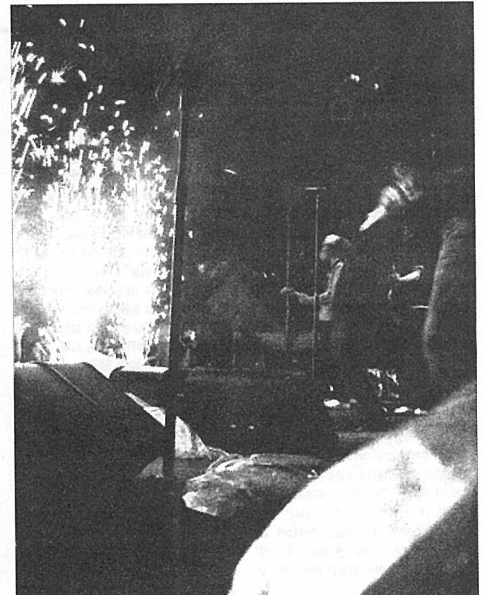


▲ 페막식날, 가수 이승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외대인. 대동제 기간 내내 썰렁했던 노천극장이 가득 찼다. 이제 대동제는 우리가 만든 축제에 인기가수가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수가 우리를 초대하는 모양새가 되버렸다.



지난 13일(월)부터 '우리 하나되어'라는 기치로 시작된 서울배움터 대동제가 16일(목) 페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동제 기간 내내 비가 내려 예정했던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된 상태로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대동제는 페막식때 초대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주점이나 먹거리 판매, 5·18 거리전 등을 제외하고는 한정된 소재로 인해 행사의 다양성 면에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등록금 투쟁, 총장선거 등 계속되는 학내 문제로 인해 대동제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학교 계사관을 통해 한 학생(아이다: 외마디)은 "수많은 학우들을 만족시킬만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학생들만이(예를들어 총학생회)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행사가 주를 이룬 것 같으며, "대동제는 외대생 모두의 축제지, 총학생회만의 축제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동제기획단장 이윤재(서양·이태리어 97)군은 "준비기간이 1주일이라 세심한 행사 진행을 기획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예년에 비해 학우참여마당이 적었다. 이전부터 대동제를 준비하지 못했고 당연히 과, 단대, 대화가 부족했다. 결국 대동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 무대 위에서 온 기를 발산하는 이승환.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노천극장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버렸다.



◀ 베네티랜드 전통의상을 입은 아여쁜 02학번 새내기들.

'미국만세'를 외치는 자여~ 물풍선 세례를 받아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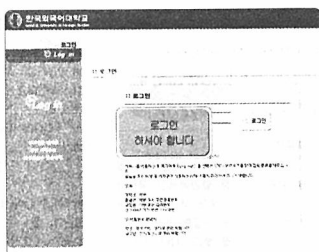
박준표 기자
양창모 기자
정용성 수습기자



<http://www.ihufsan.com>

Back Forward Stop Refresh Home AutoFill Print Mail

@ <http://www.ihufsan.com>



에 접속해

'외대발전'을 위한 '제언'을 널리십시오.

Log in은 필요없습니다!

무기명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토론 활성화... 등을 대표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징들에 역행하는 우리학교 홈페이지 www.hufs.ac.kr에서의 응답함.

www.ihufsan.com의 자유게시판 부활

'외대발전을 위한 제언'에서 속·쉬윈히 해결해 드립니다.

ihufsan
새기 만드는 인터넷발전위원회 - 이학부